DOI http://dx.doi.org/10.14380/AHF.2019.48.217

네덜란드 관용정책과 시각문화
얀 라이켄의『예수와 영혼』

손수연

Ⅰ. 머리말

孫秀延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위스콘신주립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
서양근세미술사

17세기 네덜란드는 칼뱅주의 교도들이 사회 지도층으로 부상했던 시대였지만 루터교도, 가톨릭뿐 아니라 메노파, 유대교도 등 다양한 소수 종교의 교도들이 이주해왔던 다문화 국가였다. 암스테르담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 이단자로 낙인되었던 재세례파의 분파인 메노파 교도들이 암스테르담 인구의 20퍼센트를 차지하기까지 한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여러 국가의 이주민들과 다른 교도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네덜란드의 종교관용정책(Toleration)에 기인한다. 관용정책은 처음에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상인들을 흡수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나, 무역업자, 선박제조업자들과 학자, 의사, 화가, 장인 등 유럽의 직업장인들이 대거 유입되는 계기가 된다. 연구자는 네덜란드 이주민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이주해왔기에 국가적 정체성보다는 종교적 정체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당대의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당시에 어느 정도 저명한 인물들은 세례와 장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A8031142).

** 필자의 최근 논저: 공저『메세나와 상상력: 근대 유럽의 문학과 예술 후원』서울대출판문화원, 2017;「네덜란드 장르화에서 고전의 탐색」,『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50, 2019.

례기록, 재산목록 보고서를 통해 어느 교파의 어느 교회에 소속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세기 후반이 되면 네덜란드라는 한 공간에서 서로 녹아지고 협력하여 네덜란드 황금시대의 전성기를 이루게 된다.

본 논문은 17세기 네덜란드 사회가 다른 어떤 사회보다 다문화 사회였고, 서로 다른 민족과 종교, 언어, 생활양식이 서로 교차하는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접경 연구의 방법론으로 시각문화에서 관용정책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접경의 의미는 단순히 중심에 대한 대립항 또는 국가의 국경선으로 제한되는 경향을 보였고, 미술사학계에서도 상이한 문화가 충돌하여 대립하는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어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대립관계에 더 주목해왔기에 근대 국가 이후의 상황에 치중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인문학계의 시도들을 살펴보면 문화 간의 상호 대립에만 치중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조우하고 교류하여 서로 융합하고 공존하는 공간으로 접경을 파악한다. 접경을 선이 아닌 공간, 각양각색의 문화와 가치가 경쟁하는 사회적 무대로서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체성인 인종, 종족, 종교, 언어, 생활양식 간의 교차지대인 '내적 접경'에 주목하는 추세이다. 네덜란드 관용정책으로 인해 형성된 네덜란드 공화국은 인종과, 종족, 종교와 언어, 생활양식이 서로 교차하는 곳이었다는 점에서 내적 접경의 공간으로 주목할 만하며 이들이 반목상태를 극복하고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황금시대를 이루어냈다는 사실은 접경이 서로 공존하고 융합하는 긍정적인 기능의 공간을 했음을 증명한다.

네덜란드 관용정책에 관한 국내·국외 학계의 연구는 관용정책을 도입하게 된 경제적 이유나 정치적 상황 등 정치학, 역사학, 경제학적 관점, 그리고 각 종교 교파의 활동을 연구한 종교적 관점에서 다루어졌다. 국내학계의 연구로서 17세기 네덜란드 관용정책을 다룬 연구는 전무하며, 19세기 근대 이후 이민자 수용정책이라든지, 아프리카 이주민 유입, 다문화주의, 안락사를 허용하게 된 관용정책 등 근대 이후의 정부 정책에 관한 소수의 연구가 있다.[1] 해외저술로는 17세기 연구로서 포키아 치아(Po-Chia Hsia)의 『칼뱅주의와 네덜란드 황금시대의 종교 관용정책 Calvinism and Religious Toleration in the Dutch Golden Age』(2002)이 대표적이며, 그 외의 연구는 국내연구에서처럼 19세기 근대 이후의 다문화연구에 치중되어

1 R. Po-Chia Hsia ed., *Calvinism and Religious Toleration in the Dutch Golden 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있다. 문화연구와 미술사학계에서 네덜란드 관용정책에 관한 연구는 모두 빈약한 상황이다. 관용정책으로 인해 네덜란드 문화, 특히 시각문화에서는 어떠한 영향이 있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자료나 작품으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례 연구는 더욱 미흡하다.

얀 라이켄(Jan Luyken)의 『예수와 영혼 *Jezus en de Ziel*』(1678) 은 네덜란드에서 출판된 이미지가 삽입된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엠블럼집이며 가톨릭 엠블럼집의 구성과 이미지를 차용한 프로테스탄트 엠블럼집이다. 본 논문에서는 접경공간에서의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현상들이 구체적으로 시각문화에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17세기 후반의 재세례파교도였던 얀 라이켄의 엠블럼집 『예수와 영혼』의 개별 작품 분석을 통해 현재까지 침략과 저항, 문명과 야만, 우리와 타자로 정의해온 민족주의 기반 접경연구를 새로운 시각으로 확장하여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공존하는 역동적인 장소로서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관용정책으로 인한 공존과 융합이 시각문화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 지 엠블럼집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Ⅱ. 네덜란드 관용정책과 시각문화

16세기 후반, 스페인의 군대가 안트베르펜을 약탈하여 무역 기능이 마비되고, 동양의 향신료 무역을 독점한 포르투갈이 스페인에 대항하는 네덜란드 상인과의 상품 거래를 끊어버리자 네덜란드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아시아 무역항로를 개척하였고 유능한 사람이라면 인종이나 종교를 따지지 않고 네덜란드로의 이민을 받아들였다. 적극적인 관용 정책 덕택에 암스테르담에는 도전적인 항해를 하는 데 필요한 자본, 인재, 기술을 확보하면서, 다양한 인재들이 종교, 정치적 입장,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레오 루카센(Leo Lucassen)에 의하면 그 결과 17세기 초 암스테르담 거주민의 40%는 외국 이민자들이었다고 기록한다.[2]

---

2 Jan Lucassen and Leo Lucassen, "the Netherlands," in Klaus. J. Bade, Pieter C. Emmens, Leo Lucassen and Jochen Oltmer eds., *The Encyclopedia of Migration and Minorities in Europe*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35.

관용사회가 되어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자 필연적으로 옛 제도와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네덜란드 정부는 제도를 정비하여 최대의 효율을 내는 정책을 마련했다. 해상무역에 대한 투자 붐이 일어나면서 투자가 급격히 대규모로 증가하고 경쟁이 심해지자 네덜란드 의회는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호른, 델프트, 미델뵈르흐, 엥크하위전 등 전국 각지에 흩어져 경쟁하고 있던 해상무역 상단을 하나로 모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OC)'를 설립하였다. 네덜란드 정부는 동인도회사에 국가를 대신하여 조약을 체결하고 전쟁을 수행하거나 식민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였고, 마젤란해협까지 항해권을 독점할 수 있도록 힘을 썼다. 동인도회사에는 신분이나 나이, 성별을 막론하고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고, 소액투자가 가능했으며,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금 범위에서 유한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또한 한번 투자하면 21년 동안 회수할 수 없게 해서 투자금과 수익이 쌓이는 '자본 축적 시스템'을 만들어 영국처럼 투자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항해를 시작할 때마다 투자자를 모아야하는 어려움이 없었다. 그 결과 네덜란드에서는 일용직 노동자가 상인이 되고, 상인의 아들이 시장이 되고, 하녀도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등 모든 사람들에게 경제적 기회와 정치적 기회를 부여했는데, 이는 왕, 귀족, 상류층만이 경제적·정치적 기회를 독점했던 스페인이나 프랑스 등 당대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혁명적인 제도였다.

1568년부터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전쟁을 전개해온 네덜란드는 1619년 휴전협정과 1648년 베스트팔리아조약의 체결로 인해 명목상으로나마 유지되었던 스페인의 지배를 종식시키고, 1579년 건국헌장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선언한다. 위트레흐트 연합헌장(1579)의 13조에는 '아무도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조사받을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다.[3] 프로테스탄트 칼뱅파의 개혁교회(Reformed Church)는 네덜란드 공식교회로서 지도층들의 주류를 이루었지만, 이들은 종교관용정책을 실시하여, 유럽 전역에서 종교난민들이 네덜란드로 이주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주민 중에는 유능한 학자와 과학자, 의사, 상인, 예술가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17세기에는 네덜란드 황금시대라는 전성기를 맞았다. 이 시대의 네덜란드 시민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가톨릭

3 M.E.H.N. Mout, "A Comparative View of Dutch Toleration in the Sixteenth and Early Seventeenth Centuries", in C. Berkvens-Stevenlinck, J. Israel, and G.H.M. Posthumus Meujes eds., *The Emergence of Toleration in the Dutch Republic* (Leiden, New York, Cologne: Brill, 1997), p.41.

교도와 칼뱅파교도, 루터교도, 유대교도, 메노파교도가 모두 함께 공존하는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게다가 스피노자(Benedict Spinoza, 1632~1677)와 같은 폴란드 출신 유태인 철학자는 무신론자가 되고, 메노파 시인이었던 요스트 판 덴 폰델(Joost van den Vondel, 1632~1677)은 가톨릭으로 개종했고, 시인 안나 피셔(Anna Roemersdocther Visscher, 1583~1651)는 아들은 루뱅(Louvain)에 있는 학교에서 교육시키기 위해 개혁교회를 떠나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등[4] 17세기 암스테르담에서는 종교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서로 유동적으로 이동하며 공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용정책으로 인한 공존이 네덜란드 공국화 초기부터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네덜란드가 관용정책을 실시한 이후에도 칼뱅파 등 프로테스탄트교도들과 가톨릭교도의 반목이 가장 심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당대 회화에서도 가톨릭을 상징하는 알레고리, 프로테스탄트를 상징하는 알레고리 등을 사용하여 코드화된다. 예를 들어 야콥 판 라이스달(Jacob van Ruisdael)의 〈유대인 묘지〉(1650)에서 마른 나무 가지는 가톨릭교도를, 무성한 나무는 프로테스탄트를 상징하는데 이러한 상징은 이미 종교개혁 시기의 대중선동판화에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대비로 쓰였던 상징들이다.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뿐 아니라 유대교나 메노파교도, 영국 청교도들을 폄하하는 속어, 유행어 등이 등장하고 그들의 의상이나 생활양식 등에 대한 언급이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에 드러난다. 메노파의 경우 암스테르담 시청을 점거했던 자신들의 전신인 재세례파교도들 때문에 이단이나 광신교도들로 낙인찍혔는데 이 때문에 이미지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교회미술은 가톨릭과의 차별화를 위해 전혀 제작하지 않았고, 종교서적도 메노파의 경우 가톨릭의 전통을 고수하지 않기 위해 이미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텍스트만 담은 서적을 출판하는 등 자신들의 정체성 확립과 보존을 위해 상대편과의 차별화,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이 되면 통치체제가 안정되고 네덜란드는 세계 제일의 무역국가로 황금시대를 맞는다. 이 시기에는 각 교파의 교도들이 문제에 대해 충돌하지 않고, 제도를 마련하고 서로 공존하며 상생하게 되는데 메노파 교도들의 경우, 총을 잡거나 맹세를 하지 않아 의용군대에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비난을 받았으나, 17세기 후반에는 공직에 나가지 않는 대신 선박업자나 직물업자

4 R. Po-Chia Hsia ed., 앞의 책, p.2.

등 대상인으로 출세한다. 유대인들도 상업과 의학, 과학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약하게 되는데 이 시기의 네덜란드의 민족, 종교분포도를 보면 차별화보다는 혼종의 상태에 있으며,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각 분파들도 점점 세속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유대교와 메노파의 부유한 상인들은 칼뱅주의 개혁파교도들처럼 위트레흐트 강 주변에 별장을 짓고 화려한 생활을 즐겼으며 가톨릭교도들도 미술의 후원자로서 활약한다. 렘브란트의 에칭 〈성모의 죽음〉(1639)도1은 가톨릭에서 그려졌던 주제로서 프로테스탄트 화가로 알려진 렘브란트의 작품으로는 이례적이다. 가톨릭 성인들의 전설적인 성인전인 야코부스 보라기네(Jacobus Boragine)의 『황금전설』에서 유래한 이 주제는 프로테스탄트로 알려진 렘브란트 작품의 교파를 초월한 성격을 보여준다. 성상이 제거된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주로 그렸던 피테르 산레담(Pieter Saenredam)도 〈마리아 교회〉(1641)에서는 가톨릭 후원자를 암시하는 상징들이 삽입되었다. 가톨릭 교도였던 얀 스테인(Jan Steen)의 경우도 오히려 이야기가 많은 서술적인 장르화를 선보여 신교 프로테스탄트 교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렘브란트는 또한 말기에 유대교 랍비와 친분을 쌓으며 유대교 주제를 많이 그렸다. 결과적으로 네덜란드 화가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교파나 교회가 본인의 작품의 주제와 후원자와 관련이 없음을 볼 수 있다. 종교서적의 경우도 17세기 말기의 인쇄물의 삽화는 거의 교파를 알아 볼 수 없는 이미지의 융합현상을 살펴 볼 수 있다.

1
렘브란트
〈성모의 죽음〉
1639
에칭
410×314mm
케임브리지 피츠윌리엄 뮤지엄

Ⅲ. 네덜란드의 엠블럼집 출판과 사랑 엠블럼집

표제(motto), 그림(pictura), 해설(subscriptio)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표제와

그림, 해설 간의 일치되지 않는 수수께끼의 구조로 지식인들에게 언어유희와 오락, 교훈을 전달했다. 이탈리아 출신의 변호사 안드레아 알치아토(Andrea Alciato)가 독일에서 1531년『엠블레마타 *Emblemata liber*』를 출판한 이래 인기 있는 문학 장르로 급성장한 엠블럼은 초기의 라틴어 본에서 각 나라로 확산되면서 자국의 언어로 출판되었고, 여러 장의 엠블럼이 책형태로 모아진 엠블럼집으로 편집되었다. 안트베르펜의 플란틴 출판사는 엠블럼집 전문 출판사로 1568년부터 크리스토프 플란틴(Christoph Plantin)이 사망한 1589년까지 매년 엠블럼집을 출판할 정도로 엠블럼의 인기는 전 유럽으로 확장되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엠블럼집들이 출판되어 수출되었고, 유명 엠블럼집의 경우에는 판화를 더 삽입하거나 그림을 교체해주면서 지속적인 개정판을 출판하였다.

여러 주제 중, 사랑 엠블럼집은 네덜란드 사회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세속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형태이긴 했지만 사랑이야기를 통해 가르침을 제시했고 이성과의 교제, 결혼에 있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네덜란드에서 발간된 최초의 사랑 엠블럼집은 다니엘 헤인시우스(Daniel Heinsius)의『당신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 *Quaeris quid sit mor*』(1601)이며 이 책은 1607년에『엠블레마타 아마토 *Emblemata Amato*』로 재판되었다. 이후 오토 바에니우스(Otto Vaenius)의『아모룸 엠블레마타』(1608), 피터 코르넬리즈 후푸트(Pieter Cornelisz. Hooft)의『엠블레마타 아마토리아』등이 출간되었는데 이 책들은 모두 페트라르카의 전통 하에서 이상적인 사랑을 노래한 작품들이다. 야콥 카츠(Jacob Cats)는 네덜란드의 엠블럼 전통을 확립한 작가로 1618년 출간된『알키비데스 시레누스 혹은 프로테우스 *Silenus Alcibiadis sive Proteus*』는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 2, 3부에 50개의 동일한 그림을 사용하면서, 1부는 사랑 엠블럼으로 2부는 사회적 윤리에 대한 훈계로 3부는 종교적 명상을 다루었다. 카츠의 엠블럼집은 제2의 성경이라 불릴 정도로 네덜란드 시민들이 자주 접했던 책이며 네덜란드 시민문화의 근간이 되었다. 카츠도 1부 사랑 엠블럼집에서 3부 종교명상을 다루었듯이 사랑 엠블럼과 종교 엠블럼으로의 전환은 네덜란드 엠블럼집의 전개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사랑 엠블럼집은 17세기 네덜란드에 부가 증가함에 따라 젊은이들은 집을 떠나 대학에서 공부하거나 그랑 투르(grand tour)로 남부 여행을 떠났기에 더 이상 부모의 환경 안에 있지 않았다. 그들이 사랑에 빠질 것을 염려하는 사회에서 청년들에게 사랑과 연애의 의미, 연애 감정 발전의 다양한 단계들을 가르치고자 사랑 엠

블럼집은 널리 읽혀지게 되었다.

사랑 엠블럼집을 종교 엠블럼집에 수용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남부 네덜란드에서 출판된 가톨릭 엠블럼집인 에르마누스 휴고(Hermannus Hugo)의 『경건의 열망 *Pia Desideria*』(1624)이다. 휴고의 판화가 보에티우스 볼스베르트(Boetius Bolswert)는 엠블럼집의 그림을 더욱 감정적으로 변화시켜 사랑의 감정의 감상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이후 목사였던 아드리엠 푸아티에(Adriaan Poirtiers)는 라틴어로 쓰인 엘리트적 성격의 엠블럼집을 비엘리트 대중을 대상으로 한 종교 사랑 엠블럼집 저작에 헌신하였다.

종교 엠블럼집은 1569년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 드 몽트네이(Georgette de Montenay)가 처음으로 출판한 이래, 예수회(Jesuits)에서 거의 1,500 편이 넘는 엠블럼집을 출판하였다.

프로테스탄트 측에서는 이미지를 종교생활에 이용하는 것을 금하였으나 예배용이 아닌 개인경건생활용 서적으로 출판하는 것은 허용하였기에 17세기 후반부터 적극적으로 출판되었다. 네덜란드에서 출판된 프로테스탄트 엠블럼집은 『경건의 열망』과 같은 남부 네덜란드의 예수회에서 만들어진 로마 가톨릭 엠블럼에 기초하고 있다.

Ⅳ. 얀 라이켄의 『예수와 영혼』

1. 얀 라이켄의 『예수와 영혼』과 네덜란드 사랑 엠블럼집

얀 라이켄은 네덜란드의 시인이자 판화가로 340여권의 책에 삽화를 그렸고 삽화를 포함해 삼천여점의 판화를 제작하였다. 저서로는 열 두 권의 엠블럼집과 시집, 서간문이 남아있다. 보통 엠블럼집 저자들의 경우 작자와 판화가가 다른 데 반해 얀 라이켄은 여섯 권의 엠블럼집의 시와 판화를 모두 스스로 제작하였다. 그가 재세례파에 몸담은 적이 있었고 독일의 신비주의자 야콥 보메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일반적인 프로테스탄트 교도들이 그의 책의 독자였었다. 베스트셀러로 손꼽히는 『인간의 직업 *Het Meslijk Bedrijf*』(1694)뿐 아니라 『교훈적인 가정용품들 *Het Leerzaam Huisraad*』(1711)을 비롯한 그의 엠블럼집들은 이미지를 일상의 인물들을 보여주는 장르화로 구성하여 매우 인기가 높았다.

1685년에 출판된 『예수와 영혼』은 1부에서는 하느님을 찾아 세상을 떠나는 영혼(ziel)의 여행을 담고 있으며, 2부에서는 여행에서 악마의 유혹과 계획 등 모든 종류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영혼을 보여주며 결국 예수의 현존에 의해 지지되고 격려되는 모습이 그려진다. 3부에서는 아가서(Song of Songs)에 기초하여 그림과 글이 모두 예수와 영혼의 결합, 그리스도와 영혼의 영적인 결혼이 주제이다.

『예수와 영혼』은 두 명의 남녀 인물이 등장하고 구성상 사랑 엠블럼집에 사랑 엠블럼을 종교 엠블럼에 적용했던 휴고의 『경건의 열망』(1624), 바에니우스(Otto Vaenius)의 『아모리스 디비니 엠블레마타 *Amoris divini emblemata*』, 세라리우스(Serrarius)의 『신앙적인 사고 *Goddelycke aandachten*』(1653) 의 선례가 있었는데, 얀 라이켄 역시 이들 사랑 엠블럼에 기초하여 『예수와 영혼』을 구성하였다.

『예수와 영혼』의 표지그림도2에는 남성 인물의 반대편에 여성 인물이 서 있는데, 휴고의 피아데시데리아의 2부의 여덟 번째 엠블럼의 이미지(엠블럼 23)도3과 유사하다. 표지 이미지의 아래에 쓰인 모토는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Treckt my, wij sullen u na lopen)"이며 아가서 1장 4절의 "나를 이끄소서 내가 당신을 따라 가리이다"에서 차용한 구절이다. 이는 휴고의 『경건의 열망』의 엠

2
얀 라이켄
『예수와 영혼』의 표지
1685

3
에르마누스 휴고
『경건의 열망』 엠블럼23
1624

블럼 23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Trahe me post te, curremus in odorem unguentorum tuorum)”에서 볼 수 있으며, 등장하는 두 나무의 얽혀 있는 모티프 또한 휴고의 이미지에서 차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왼쪽에는 ‘영혼(ziel)’으로 추측되는 여성은 오른쪽의 예수 그리스도로 추측되는 남성을 따라가고 있는데, 휴고의 엠블럼에서는 오른쪽의 여성이 왼쪽의 큐피드를 따라가고 있어 위치만 반대이다. 당시 결혼한 커플의 이미지에서 왼쪽에 여성, 오른쪽에 남성이 위치하기 때문에 얀 라이켄의 이미지가 그리스도와 영혼의 신비적인 결혼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휴고와 바에니우스가 영혼의 순례를 강조한 데 비하여 얀 라이켄은 그리스도와 영혼의 영적인 결혼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3부에서는 결혼주제가 더욱 강조되었다.

휴고와 바에니우스의 종교 엠블럼집에서는 내용이 종교적인 종교 엠블럼으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 엠블럼집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여전히 사랑의 신인 큐피드의 모습인 날개달린 천사의 어린이 같은 인물로 나타난다. 반면 얀 라이켄은 남성인물을 날개달린 천사가 아닌 성인 남성으로 표현하였다. 얀 라이켄은 또한 남성인물과 여성인물이 눈빛을 주고 받는 장면이 많아 당대의 신비주의자들이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결혼을 주장하였는데 야콥 보메(Jacob Böhme)와 같은 독일 신비주의 작가의 영향을 볼 수 있다. 또한『예수와 영혼』의 본문에서 영혼이 하느님을 찾고 신의 세계와 연합함은 아가서(Song of Songs)에서 신부가 신랑을 찾는 것에 비유되었다.『예수와 영혼』의 서문에서도 “너의 신랑, 가장 멋진 사람 / 그를 불러라 그의 팔은 넓다”라는 구절에서 신랑이라는 표현을 볼 수 있으며, 마지막 엠블럼인 ‘영원한 나라와 동일한 기쁨’에서도 하느님의 이미지가 인간으로 결합된 미스테리, 천국 성찬에서의 결합을 강조한다. 이렇게 성인 그리스도가 영혼의 의인화로 성인 여성으로 그려진 선례는 1620년대 브뤼셀에서 출판된 여러 저자들의 종교 사랑 엠블럼집에 간간히 나타나기도 하는데 얀 라이켄의『예수와 영혼』에서처럼 체계화되어 프로그램식으로 구성된 경우는 처음이다.

라이켄의『예수와 영혼』에서 숫자의 구성도 휴고와 바에니우스의 엠블럼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휴고의 경건의 열망에서는 1부가 15개의 엠블럼으로 들어가며 총 45엠블럼이 3부 구성으로 이루어져있다.『예수와 영혼』에서도 13개의 엠블럼이 1부를 구성하여 총 40개의 엠블럼이 3부로 구성되어있다. 40이라는 숫자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생활을 한 40일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책형부터 승천까지의 40일을 의미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예수와 영혼』에서는 표지에 나왔던 예수 인물이 엠블럼1에서 6까지 나오지 않다가 엠블럼7에서 등장하는 점이 특이하다. 휴고와 바에니우스 모두 숫자 7을 강조하지 않았지만 라이켄은 하느님과 영혼의 연합, 완벽을 상징하는 숫자

4
얀 라이켄
『예수와 영혼』 엠블럼1
1685

5
에르마누스 휴고
『경건의 열망』 엠블럼20
1624

6
에르마누스 휴고
『경건의 열망』 엠블럼42
1624

7
얀 라이켄
『예수와 영혼』 엠블럼39
1685

에 예수를 등장시켜 강조하였다.

라이켄의 엠블럼에서 엠블럼 1,2에서처럼 당나귀 귀를 가진 인물이 자주 등장하는 데 이는 죄성을 가진 옛 모습의 인간을 상징한다.도4 휴고와 바에니우스는 유혹을 가져다주는 인물들이 화려한 옷을 입은 여성 의인상으로 나타난다.도5

휴고의 엠블럼 42에서 '아모르스 디비니(Amors Divini)'의 인물은 여성인물과 커텐이라는 장벽을 두고 서있다.도6 얀 라이켄의 엠블럼39에서도 예수와 영혼은 벽에 가로막혀 있어 장애물을 사이에 두고 두 인물이 분리되어 있는 구성이 유사하다.도7 휴고와 바에니우스의 엠블럼에서 벽은 인간의 믿음을 상징하였지만, 라이켄의 글에서는 두 인물을 가로막는 벽의 상징이 인간의 육체임을 더 강조한다.

2. 17세기 후반 종교 엠블럼집과 『예수와 영혼』의 융합적 성격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와 영혼』은 구성과 양식에 있어서 남부 네덜란드에서 출판된 가톨릭 엠블럼집의 영향을 받았음을 볼 수 있다. 이미지의 칠십 퍼센트 이상은 에르마니우스 휴고의 『경건의 열망』, 바에니우스의 『신의 사랑의 엠블럼』, 판 하프텐의 『레지아 비아 크루시스 *Regia Via Crucis*』에서 차용하였다. 얀 라이켄 자신도 그의 작품이 이미 존재하고 있던 엠블럼 전통을 따랐음을 서문에 밝히고 있다.

> 이 엠블럼 정원에 들어온 그 누구도 이 모든 작은 꽃들이 우리 땅에서만 자랐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이다.[5]

얀 라이켄은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미지나 구성만 가톨릭 엠블럼에서 차용한 것은 아니다. 엠블럼집을 가지고 개인의 경건생활에서 명상하는 방법에서 가톨릭 엠블럼의 명상방법에 기초하고 있어 이미지의 기능에서도 유사성을 보인다.

가톨릭 엠블럼의 해설문(subscriptio)은 보통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소설정 (composition of loci)과 주제의 이해와 분석을 설명하는 '분석(Analysis)',

---

5 "Niemant, die in het hof dezer Sinnebeelden komt, dencke, dat al dese Bloempjes uyt onze eygen Grondt gewassen zijn," Luyken, *Jezus en de Ziel* (1685), .A3r.

EMBLEMES. Book I. Book I. EMBLEMES. 41

X.

X.

IOH. VIII. XLIV.

Ye are of your father the devill, and the lusts of your father yee will doe.

Here's your right ground: Waggé gently ore this Block;
Ti's a shoit Caſt; y'are quickly at the Jack:
Rubbe, rubbe an Inch or two; Two Crownes to one
On this Boules ſide; Blow winde; 'Tis fairely throwne;
The next Boul's worſe that comes; Cóme boule away;
Mammon, you know the ground un-tutor'd, Play;
Your laſt was gone; A yeard of ſtrength; well ſpar'd,
Had touch't the Block; your hand is full too hard.
Brave paſtime, Readers, to conſume that day,
Which, without paſſime, flyes too ſwift away!
See how they labour; as if day and night
Were both too ſhort, to ſerve their looſe delight;
See how their curved bodies wreathe, and skrue
Such antick ſhapes as *Proteus* never knew:
One raps an oath; another denies a curſe;
Hee never better bould; this, never worſe:
One rubbes his itchleſſe Elbow, ſhrugges, and laughs;
The tother bends his beetle-browes, and chafes,
Sometime they whoope; ſometimes their Stigian criue
Send their Black-*Saintes* to the bluſhing Skies;
Thus, mingling Humors in a mad confuſion,
They make bad Premiſes, and worſe Concluſion:

D

But

8
프란시스 콸스
『종교 도덕 엠블럼집』
엠블럼10
1640~1641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원(Colloquy)'이라는 하느님께 청원하는 기도로 되어있다. 이러한 구성은 초기의 예수회 엠블럼 저자인 제롬 나다르(Jerome Nadar)의 엠블럼집에서 볼 수 있는 구성이며 프로테스탄트 엠블럼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된다. 엠블럼 학자 홀트겐(Höltgen)은 엠블럼의 개념적, 도상적 의미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교단적 차이는 드러나지 않고, 종교 엠블럼의 경우 장소 설정, 분석, 청원의 구조는 거의 비슷하다고 말한다.[6] 예수회 엠블럼집을 차용한 프로테스탄트 엠블럼집인 영국의 프란시스 콸스(Francis Quarles)의『종교 도덕 엠블럼집 *Emblems, divine and moral, together with Hieroglyphicks of the life of man*』(1640~1641)을 보면 먼저 시각적인 장소를 머릿속에 그리도록 이미지를 설정하고, 이미지의 분석에 대한 내용을 해설문에 자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청원에 대한 내용을 넣었다. '볼링게임'도8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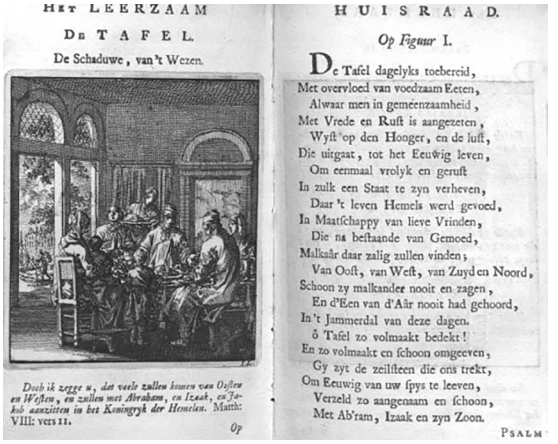
> 자 여기 땅에 …
> 보라 그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
> 보라 그들이 어떻게 구부러진 몸체로 움직이는지 …[7]

시각적 디테일을 얘기하기 전에 '여기(here)'를 '보라(see)'고 제안한다. 이것은 장소 설정(compositio loci)에 해당하여 독자들이 각자의 장소에 정신의 그림(mental picture)를 형성하게 도움을 준다.

---

6 Höltgen, Karel Josef, "Devotional Quality of Quarles's Emblems," *Aspects of the Emblem: Studies in the English Emblem Tradition and the European Context*(Kassel: Reichenberger, 1986), p.48.

7 "Here's your right ground … /See how they labour … /See how their curved bodies wreathe and skrue … "; Francis Quarles, *Emblems, divine and moral, together with Hieroglyphicks of the life of man*(1640~1641), emblem 10(Karel Josef Höltgen, "Emblem and Meditation: Some English Emblem Books and Their Jesuit Models," *Explorations in Renaissance Culture 18* (1992), p.61에서 재인용)



9
얀 라이켄
엠블럼1 「식탁(De Tafel)」
『교훈적인 가정용품들』
1711

10
얀 라이켄
『예수와 영혼』 엠블럼1
1685

얀 라이켄이 출판한 엠블럼집에서도 동일한 구성을 보이는데 얀 라이켄의 〈교훈적인 가정용품들〉(1711)을 예로 들면 장소설정 단계로 먼저 이미지와 해설문에서 물건이 놓여진 장소를 상기시키며, 상황이나 물건에 대한 묘사를 시각적으로 자세히 설명한다. 엠블럼 1 〈식탁〉을 예로 들면, 해설문의 첫 네 줄은 식탁에 모여 앉은 가족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한다.도9 그리고 중간부분인 분석 부분에서 식탁과 관련된 명상해야할 부분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설명이 이어진다. 카톨릭 엠블럼에서 청원에 대한 기도는 얀 라이켄의 엠블럼에서는 오(O), 아(Ah)와 같은 감탄사를 사용하여 하느님께 청원하는 것으로 해설문을 맺는 점들이 가톨릭 엠블럼의 청원 부분과 같은 구조로 볼 수 있다. 『예수와 영혼』에서도 각 엠블럼에 이와 같은 청원의 내용이 해설문의 말미에 들어가고 있으며 엠블럼 1도10을 예로 들면 "오 주님 나에게 다른 마음을 주소서(O Heer geeft my een ander hert)"라는 청원으로 끝을 맺는다. 이러한 구성은 『예수와 영혼』의 다른 엠블럼에서도 반복된다.

17세기에 프로테스탄트 저자들이 예수회 엠블렘 저자들처럼 시각 이미지를 사용해 명상하는 방법을 종교 엠블럼 제작에 도입하였다는 사실은 종교개혁 때 칼슈타트와 같은 급진주의자들의 이미지 제거 주장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러나 루터는 이미지의 오용과 남용은 금하였지만, 이미지 사용을 금한 것은 아니며 종교개혁 이후 루터교 교회에서 여전히 제단화를 사용하고 있었음이 증명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칼뱅주의의 개혁교회가 주도적인 국가였는데 칼뱅의 경우 예배당에서의 사용은 금하였지만,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풍경화와 일반 회화는 허용하였다. 17세기 초기에는 가톨릭 이미지들이 제작되지 않았지만, 17세기 후반에 가

면 관용정책 하에서 가톨릭교도들과 프로테스탄트인 네덜란드 개혁교도, 재세례파교도들, 아르미니우스의 레몬스트란트(Remonstrant) 교도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이들 교파들에서 선호했던 주제들이 공통의 관심사로 감상되었다. 2장에서 언급하였듯 렘브란트는 〈성모의 죽음〉(1639)도1 등 보라기네의 『황금전설』에 수록된 가톨릭 성인의 주제를 그리기도 한다. 성상이 제거된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주로 그렸던 피테르 산레담도 〈마리아 교회〉(1641)에서는 가톨릭 후원자를 암시하는 상징들을 사용하고 가톨릭 교도였던 얀 스테인의 경우도 오히려 이야기가 많은 서술적인 장르화를 선보여 신교 프로테스탄트 교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낳게 한다. 이렇듯 17세기 후반이 되면 다양한 주제들과 교파의 특징들이 프로테스탄트 국가인 네덜란드에서 공존하며 혼용된 것이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 엠블럼집이 가톨릭 엠블럼집과 구성이 유사하다고 하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차별을 두고 있다. 프로테스탄트 저자들은 독자들이 이미지를 숭배하지 않게 하고, 명상할 때 오감은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예수회 명상과 프로테스탄트 명상의 차이점에 대해 르왈스키(Barbara Lewalski)는 프로테스탄트 명상은 명상의 주제를 자신에게 적용시키지만, 예수회 명상은 명상의 주제에 자신을 대입시킨다고 하였다.[8] 또한 딜(Diehl)은 프로테스탄트 명상에서는 감정을 심하게 동요시키는 오감사용은 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9]

무엇보다 프로테스탄트 측에서는 시각(sight)보다는 청각(hearing)을 우위에 놓았으며 시각의 유혹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이미지 사용이 이미지 공경이나 성상 공경으로 연결되는 가톨릭 전통과 융합되지 않도록 권고한 것으로 보인다. 렘브란트가 그린 메노파교도 목사 얀 슬로 부부초상에는 당대의 유명 시인이자 학자 폰델(Vondel)의 글귀가 스케치에 써져 있는데 "어이 렘브란트, 얀슬로의 목소리를 그리라"고 적혀 있다. 라이켄의 『예수와 영혼』의 엠블럼3에도

> 이 보이는 세계는 내적인 세계의 외양이 그저 바깥으로 나온 것. 우리가 여기서 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안에 있다.[10]

---

8 Barbara Lewalski, *Protestant Poetics and the Seventeenth-Century Religious Lyric*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p.150.

9 Huston Diehl, "Graven Images: English Emblem Books and the Protestant Reformation", *Renaissance Quarterly 39* (1986), p.63.

10 "Dese sigtbare werelt is niet anders alseen uytgeboorte van de inwendige werelt: al wat wy heir sien dat is

라고 하며 보이는 것인 시각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프로테스탄트적 시각을 표현한다.

또한 프로테스탄트 엠블럼집에서는 성경 내용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엠블럼 후반부에 성경구절이 더 부가된다는 점이다. 『예수와 영혼』의 각 엠블럼에는 해설문이 끝나면 '신의 답변 (Godelijk Antwoordt)'이라는 섹션을 두고 있고 이곳에 성경구절과 저자의 해설을 수록하고 있다. 엠블럼1도10에는 히브리서 3장 15절, 이사야 55장 7절, 누가복음 15장 18절, 누가복음 18장 13절을 수록하였는데 성경구절은 마지막 엠블럼에도 계속 수록된다. 엠블럼을 개인의 종교 경건생활에 이용할 때 제목과 그림, 해설문을 묵상하고 관련 성경구절까지 연상할 수 있도록 엠블럼의 기능적 측면을 강화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은 얀 라이켄이 최초로 창안한 것은 아니고, 야콥 카츠가 『프로메테우스』의 3부에 종교적인 메시지로 엠블럼집을 구성하면서 성경구절을 한 개씩 넣은 선례가 있다. 라이켄은 『예수와 영혼』에서 성경구절의 숫자를 3~4개로 늘렸으며, 『교훈적인 가정용품들』(1711)과 같이 18세기 초에 출판된 엠블럼집에는 10구절 정도의 관련 구절을 수록하였다.

얀 라이켄은 독일의 신비주의 경건주의자(Pietist) 야콥 보메와 영국의 침례교인 존 번연(John Bunyan)의 영향을 받은 네덜란드 재세례파에 소속되었던 작가이다. 그가 이러한 엠블럼집을 제작하면서 자신이 소속되었던 교파의 특성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재세례파는 17세기 암스테르담 인구의 20퍼센트를 차지했던 프로테스탄트 교파였는데 이 세상에서의 삶을 천국으로 가는 순례 여행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순례 모티프를 문학과 미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영혼의 '결혼' 주제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데 재세례파는 재세례파 교도인 다비드 요리스(David Joris)의 뮌스터 폭동사건으로 네덜란드에서 이단자로 낙인찍혔고 많은 교도들이 화형을 당하는 박해를 겪었다. 그들은 공동체의 박해가 어린 양의 결혼식의 전조현상으로 믿었기 때문에 신랑되신 그리스도와 재세례파 교회와의 연합이 천국의 성찬에서 이루어질 것을 염원하였고, 이러한 결혼메시지가 항상 강조되어 왔다.[11] 『예수와 영혼』에서도 궁극적인 목적은 이 책을 읽는 신자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결합하는 영적 결혼에 있으며 3부에서는 13개의 엠블

ookinwendig in 't onsichtbare'," Jan Luyken, *Jezus en de Ziel* (1685), p.20.

11 Rabia Gregory, *Marrying Jesus in Medieval and Early Modern Northern Europe: Popular Culture and Religious Reform* (New York: Routledge, 2016), p.220.

럼이 결혼 주제로 통일 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한 교파적 차이는 이 엠블럼집을 심도 있게 분석했을 때 느낄 수 있는 현상이다. 엠블럼의 해설문(subscriptio)을 비판적으로 읽었을 때 종파의 차이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책의 구성과 이미지만 보면 종파적 차이를 전혀 감지할 수 없다. 홀트겐[12]이 주장했듯이 엠블럼의 개념적, 도상적 의미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교단적 차이는 외형상 드러나지 않는다.

Ⅴ. 맺음말

현재까지 인문학에서의 접경 연구가 문화이론이나 철학의 담론 중심의 이론적 연구로 제시되었을 뿐 실제적인 역사적 자료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실제 사례 분석은 미흡한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네덜란드의 프로테스탄트 엠블럼집인 얀 라이켄의『예수와 영혼』의 분석을 통해 관용정책 하의 네덜란드 종교문학에서 각 교파의 시각 문화가 공존, 융합하는 현상을 살펴보았다. 16세기에 이미지를 금기시했던 칼뱅주의자들과 메노파 등 프로테스탄트 교도들이 가톨릭, 예수회교도들처럼 종교 서적에 적극적으로 이미지를 차용하였고, 구성과 양식에서도 가톨릭 엠블럼의 외형을 차용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네덜란드는 17세기 후반 유럽에서 가장 엠블럼집을 많이 출판, 수출하였고, 이들 중 일부는 동인도회사를 통해 중국과 일본으로도 전해질 만큼 삽화가 그려진 종교 엠블럼집 출판은 전성기를 이룬다. 네덜란드가 세계 최고의 엠블럼집 수출국이 되었다는 사실은 네덜란드에 이주해 와 각 교파에 속했던 시민들이 초기의 충돌과 반목의 시기를 지나 공존과 융합을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교파가 함께 보는 엠블럼집을 생산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최고 수출국이 되는 창조적 역동력의 성과를 이루게 된 것이다. 이는 접경공간이 서로 다른 가치와 문화가 어우러져 긍정적인 기능을 담당했음을 증명하는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은 당시 융합과 공존의 현상이 단지 종교 교파만의 공존과 융합뿐 아니라 경제적 상류계층과 하류계층의 공존, 융합 확산에도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17세기

12 Höltgen, 앞의 논문, p.48, 각주2.

후반 네덜란드는 같은 디자인의 도자기가, 상류층에게는 중국 백자로, 하류층에게는 델프트 도기로 공급되어, 같은 디자인의 상품을 모든 구성원들이 향유하였다. 이는 접경의 공간에서 단지 공간과 시간의 융합뿐 아니라 계층이 다른 구성원들의 취향과 생활방식에도 융합과 공존 현상으로 확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keywords
접경 border, **엠블럼집** emblem, **얀 라이켄** Jan Luyken, **관용** toleration, **네덜란드** the Nethelrands

투고일 2019년 2월 28일 | 심사일 2019년 3월 20일 | 게재확정일 2019년 4월 30일

참고문헌

Daly, Peter M, *Literature in the Light of the Emblem*,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8.

Diehl, Huston, "Graven Images: English Emblem Books and the Protestant Reformation," *Renaissance Quarterly 39*, 1986, pp.49-66.

Gregory, Rabia, *Marrying Jesus in Medieval and Early Modern Northern Europe: Popular Culture and Religious Reform*, New York: Routledge, 2016.

Hsia, R. Po-Chia ed., *Calvinism and Religious Toleration in the Dutch Golden 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Höltgen, Karl Josef, "Devotional Quality of Quarles's Emblems," *Aspects of the Emblem: Studies in the English Emblem Tradition and the European Context*, Kassel: Reichenberger, 1986, pp.30-65.

Hugo, Herman, *Pia Desideria*, 1624.

Lewalski, Barbara, *Protestant Poetics and the Seventeenth-Century Religious Lyric*,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Luyken, Jan, *Jezus en de Ziel*, 1678, 1685.

Luyken, Jan, *Het Leerzaam Huisraad*, 1711.

Loyola, Ignatius de, *The Spiritual Exercises* (1548), ed. Puhl, Louis J., *The Spiritual Exercises of St. Ignatius*, Westminster, Maryland: The Newman Press. 1951.

Mout, M.E.H,N., "A Comparative View of Dutch Toleration in the Sixteenth and Early Seventeenth Centuries," in C. Berkvens-Stevenlinck, J. Israel, and G.H.M. Posthumus Meujes eds., *The Emergence of Toleration in the Dutch Republic*, Leiden: Brill, 1997.

Quarles, Francis, *Emblems, divine and moral, together with Hieroglyphicks of the life of man, 1640~1641*, Ilkley, Yorkshire: Scolar Press, 1975.

Stronks, Els, *Negotiating Differences: Word, Image and Religion in the Dutch Republic*, Leiden, Netherlands: Brill, 2011.

Dutch Toleration Policy and the Visual Culture:
Jan Luyken's *Jezus en de Ziel*

Sohn, Sooyun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tolerance policy in visual culture by a methodology of border studies. The seventeenth-century Dutch society was a multicultural society where a multi cultural traditions such as religions and lifestyles exist.

Whereas the Calvinists emerged as social leaders, the seventeenth-century Netherlands was a multicultural country where various minorities such as Lutherans and Catholics as well as Mennonite and Jewish migrated and coexisted.. In the case of Amsterdam, the Mennonites, a branch of the Anna Baptists that was stigmatized as heretics in other countries, account for 20 percent of Amsterdam's population. The reason why many immigrants and other religions were able to live together is due to the Toleration policy of the Netherlands.

Jan Luyken's *Jesus and the Soul* (1678) is the first Protestant emblem book with images in the Netherlands. Luyken applied the composition and pictorial traditions of the Catholic emblem into the Protestant emblem. In this paper, by analyzing the individual works of a Mennonite poet and etcher, Jan Luyken, I will suggest the multicultural Netherlands as a space of border. Up to the present, border studies based on nationalism has been defined by dichotomous view as invasion verse resistance, civilization verse barbarism, and we verse other. However, I would like to suggest border as a new dynamic place where various cultures and values coexist. In this paper, we will present how the coexistence and convergence due to tolerance policies will be revealed in visual culture through case analysis of an emblem book.